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성덕대왕 신중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중  
통일신라시대 ▶2면

# 현대불교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모든 마음의  
공덕이 깨끗해진다. <유마경 상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윤 3월 12일) · 주간

대표단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6 호 2012년 5월 2일 수요일

## 어린이 법회 17% 증가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어린이날 맞아 살펴본 조계종 어린이 포교현황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파라미타 청소년법회가 포교원과 2011년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청소년법회 운영사찰은 304곳으로 조사됐다. 2008년 5월 조사 당시 결과인 260곳에서 17% 증가한 수치다. 조계종 미등불사찰이 2008년 조사와는 달리 2011년 조사에서 빠진 것을 포함하면 증가 수치는 더욱 올라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어린이 법회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중심도량 제도와 인사 고과제에 정착이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주말 사찰을 찾는 어린이들이 늘어나 어린이 법회 운영사찰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남여 영아법회나 명상 프로그램, 헌정체형실습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아이들을 사찰에 잠시 보낸다는 개념에서 고정적으로 맡긴다는 개념으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미선 동원 사무국장은 "어린이 불자들을 사찰로 오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맞게 진행하는 것"이라

### 주5일제로 참가자 요구 높아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급선무

며 "어린이법회를 사찰 사정에 맞게 여는 것이 주지 스님에게 달려있다면 아이들을 오게끔 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진행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어린이 법회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한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토요일 정기적으로 하는 곳, 양 이틀을 다 하는 곳, 심지어 공부방을 빌려 하는 곳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 사무국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전문가 육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사무국장은 "영어법회인 달마 스쿨, 명상 프로그램 등 일선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일반교육 현장에서도 창의력개발 교사 등 수요가 많은 만큼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국가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찰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한근 파라미타 청소년법회 사무국장은 "국제청소년취포상제가 실시 중에 있다. 중단에서는 불교스카우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봉사 프로그램과도 연계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승가대에 이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선 전문가 교육과 함께 이를 이끄는 지도자 교육이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인격적인 인성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특수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 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찰의 스님들이나 재가불자들이 어린이들의 스승이 되어주고 함께 공부하고 지도할 때 어린이 포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은 벌써 부처님오신날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이 봉축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4월 25일 안양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이 제등행렬에 동참할 '대공등(大空燈)'에 채색을 하고 있다. 성덕대왕 신중을 모티브로 제작된 대공등은 범종소리가 허공에 퍼져 세상의 무명을 밝히듯, 채가 없는 대공의 근본불성자리가 일체생명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있음을 상징한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 세계불교, 화합을 발원하다

### 제3회 세계불교포럼 25~27일 홍릉서 열려

불교홍법 등 다양한 주제 토론 세계 평화·화합의 지혜 다짐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참가한 불교 지도자, 학자 등 불자 1천여 명이 세계평화와 화합을 발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중국불교협회(회장 주안인)와 홍콩불교연합회(회장 쥘에관), 중화중교문화교류협회(회장 왕조안)는 4

월 26일 홍릉체육관에서 제3차 세계불교포럼 개막식을 봉행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총회회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은 서구 중심 사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개인적 차원

에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세계불교와 한국불교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종교로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다양한 주제의 분과토론이 진행됐다. 27일까지 진행된 분과토론은 △불교홍법의 현대적인 모델 △생활속에서 불교의 응용 △불전(佛典)의 정리, 보호, 번역의 현대적인 해석 △불교교육의 전통, 현상 및 미래 발전 등 7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또한, 영답 스님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쉘정(學誠)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단장 고바야시 류스 스님 등이 '황금유대에 관해'라는 주제로 TV토론을 갖고 한중일 3국 간의 우호선린관계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이번 포럼을 기념하기 위해 '부처님 두정골 사리 이운 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현지 생중계로 진행돼 세계불교포럼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보여줬다. 신종일 기자



40여개국에서 불교지도자, 학자, 스님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6일 홍릉에서 제3차 세계불교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개막식의 모습 사진제공=금강불교신문

## 7대 종교가 펼치는 상생의 장

### KCRP,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최...5일 개막식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2012년 이웃종교 화합 주간'을 펼친다. KCRP는 4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5개월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KCRP는 "이웃종교 화합주간은 UN이 정한 'World Interfaith Harmony Week(매년 2월 첫째 주)'에 UN 회원국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다. 화합과 상생에 대한 종교인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

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웃종교 화합 심포지엄은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UN이 정한 'World Interfaith Harmony Week'와 한국의 이웃종교 화합주간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5월 5일 개막식 행사에는 한국 7대 종단 수장들의 개막 선언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축하공연과 체험 학습이 열린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웃종교 스탬프 투어'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종교 시설 7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시설을 방문하여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도장을 받을 수 있다.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웃종교 스테이'는 7월 6일~9월 2일까지 이웃종교의 성지 및 수도원 등에서 가족과 함께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7월 이후부터 펼쳐지는 지역 종교인 화합행사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충북 등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10월 6일 잠실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02)736-2250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 886호 CONTENTS

종단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세미나 조계종 사찰법 및 시행령 시행

종합 2556 부처님오신날 전국 봉축행사 일정 묘각사, 프랑스학교 템플스테이

시방세계 조계사 봉축 선포식 '와락'



(새연재 · 월 1회)

기쁜 님을 찾아가는 만행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



031)792-6288 / 794-4055

# 21C 文化遺產 매니지먼트 시대로...

### 서진문화유산은...

-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 국보·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 산·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학 협력 협약체결 등)
-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개념 도입
-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 기획·설계
- ▶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 HIP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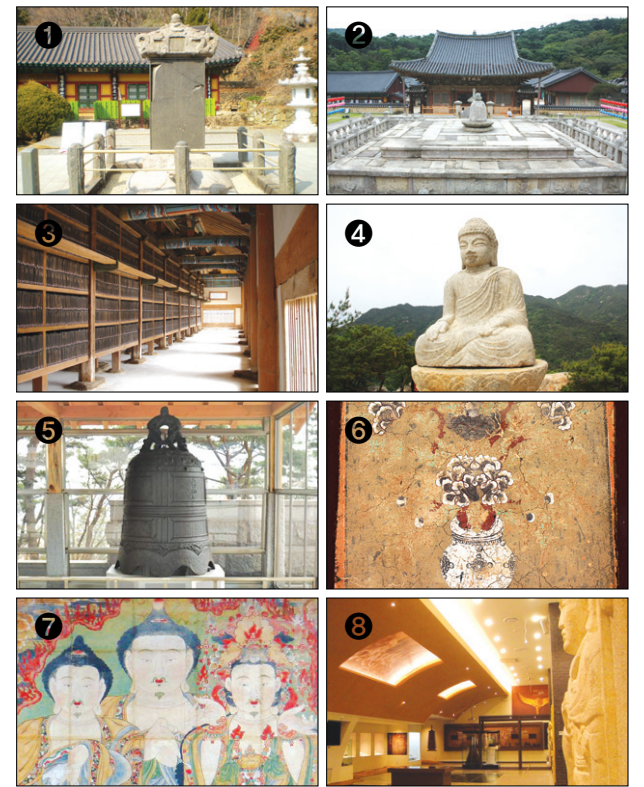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페이지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류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 주요사업영역

-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괴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원형미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 CRM 영역
- ▶ HIP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기획
-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자문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 문화상품 기획·개발
-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 주요사업실적

- [국보 제47호] 쌍계사 진관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①
- [국보 제132호] 정미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 [국보 제290호] 봉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②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③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④
- [보물 제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 [보물 제1242호] 함천 해인사 김상탑 보존처리
-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⑤
- [시도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⑥
-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봉선사대불 보수사업 ⑦
-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혜궁 내의 및 상공우 보수정비
-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충전시 및 복원)
-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⑧
- 세계유산등재추진 공평화석(말차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보존유리의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 본사 : 경북 경주시 서부동 4-5 경주오씨스텔 6010 ● 지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D동 610호(소하동 평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 771-9747, 02)2083-1520 ● 팩스 : (054) 771-9748, 02)2083-1521

서진문화유산(주)  
Seoj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